친환경적 공원 수목장으로 새 장례문화 열어

거제 신광사, 수목공원 문 열어

성낙두 경남지사장 snakdu@daum.net

명부전에 옆 3000여 평 대형 규모
수목장 운영 쌍계사 이어 두 번째
친환경적 공원처럼 운영 새 모델
경내자리해 '혐오시설' 시각 없애


거제 신광사에 수목공원이 새롭게 문을 열었다. 회주 현근 스님과 선안 스님이 기념식수를 하고 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9교구 동화사 말사 거제 신광사(주지 선안)가 경내에 수목공원(수목장)을 열었다.

신광사는 11월 15일 경내 수목공원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불교 임종의식과 장례문화를 새롭게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새로운 불교문화로서 수목장을 연다고 밝혔다. 아울러 늘어나는 묘지로 인해 훼손되는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존하고 무덤이란 부정적 인식에서 벗어나 가족들이 함께할 수 있는 친환경적 공원의 새로운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신광사 회주 현근 스님은 "불교에서는 전통적으로 화장을 한다. 하지만 수목장은 우리의 몸이 물과 불과 바람과 흙 등 4가지 요소로 이뤄진 것으로, 자연 본래대로 돌아가는 과정이다"며 "화장하는 것이나 수목장하는 것이나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과정이고 남는 뼈는 흙의 성분이라 가장 자연스럽게 돌려보내는 것이 수목장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무와 자신의 몸을 흙 기운으로, 본래대로 돌려주는 과정이라 공해도 없어 가장 좋은 장례문화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주지 선안 스님은 수목장이 죽음을 설명하고 불교적 윤회의 가르침을 설명하는 도량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자연스럽게 전달하는 장소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선안 스님은 "먼저 영리목적이 아니다. 누구나 함께하는 공원과 같이 운영될 것이며 혐오시설이 아닌 도량 속의 일부분이 되도록 관리하고 제공할 것이다"며 "이런 의미에서 수목장이라 하지 않고 수목공원이라 부른다. 공원처럼 운영해 유가족들이 언제나 찾아와 고인을 추모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이고 관상용 나무를 팔지 않는 곳은 신광사가 유일하다"고 말했다.

신광사 수목공원은 대한불교조계종에서 허가한 두 번째 수목장으로, 신광사 명부전 옆에 위치하며 약 3천여 평의 대형 규모이다.

신광사는 2020년 8월 수목장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2020년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수목장 인허가를 위한 준비를 진행했다. 2021년 5월 거제시에 종교단체 수목장을 신청했으며 7월에 이행통보를 받았다. 4개월간의 조성공사 기간을 거쳐 2021년 11월 3일 수목장 허가를 취득했다. 현재 조계종 수목장 운영 사찰은 하동 쌍계사와 거제 신광사 두 곳이다.

선안 스님은 "죽음은 혐오의 대상이 아니다. 마지막 임종은 무엇보다 중요하며 바른 장례문화를 불교가 새롭게 '문화'로 가꿔야 하는 과제이다"며 "수목장을 조성하면서 지역 주민들과 잡음이 없었고 원만히 좋은 결과를 이뤄냈다. 모범적으로 운영해 좋은 문화를 일구는 선구자로 자리 잡고자한다"고 말했다.

광명사, 지역주민 위한 자비나눔 실천

11월 21일 김장김치 등 전달



천태종 광명사(주지 춘광)가 11월 21일 경내 대중공양실에서 '부산 금정구 이웃을 위한 자비나눔 전달식'을 진행했다.

광명사는 전달식에서 지역 내 다문화가정 및 복지관에 직접 담은 김장김치와 라면을 전달했다. 이날 참석한 주지 춘광 스님, 금정구불교연합회 회장 고담 스님, 백종헌 국회의원, 정미영 금정구청 구청장, 최봉환 금정구의회의장은 신도들과 함께 직접 김장 김치를 담갔으며 추운 겨울에 소외 이웃들이 행복하기를 기원했다.

주지 춘광 스님은 "참석해주신 모든 내빈들과 봉사에 앞장서 주신 신도들에게 감사한다"며 "오늘 광명사에서 직접 담근 김장김치로 모든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사)대한불교대승조계종 창종법회

11월 20일, 경주시 대원사서 개최
총본산 울산 마하사, 42개 사찰 등록



대한불교대승조계종(총무원장 석자운)이 11월 20일 경주시 내남면 대원사에서 '(사)대한불교대승조계종 창종법회'를 봉행했다. 〈사진〉

창종법회에는 종정 석원정 스님, 총무원장 석자운 스님, 부산 금화사 남월 스님, 부산 미타사 선재 스님, 승정원장 석보경, 원로의장 석선학, 종회의장 석월암 외 종단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종정 석원정 스님은 "마음의 6근은 마음도둑이다"며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한 것이 모두 본인이기에 불법을 공부를 해서 6근과 12처를 깨우치고 화두를 지니고 성불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총무원장 석자운 스님은 "연꽃은 불교의 진리를 상징한다. 진흙 속에서 솟아나와 아름다운 꽃망울을 터트리듯이 대한불교대승조계종 또한 그동안 많은 산고(產苦)의 아픔 속에서 오늘 이 영광된 날을 맞이하게 되었다"며 "비록 본 종단이 아직은 미약한 힘으로 출발하지만 앞으로 끝없는 자성의 노력으로 내부를 정화하고 사회적 활동으로 불교 본연의 존재성을 구현해 나아갈 것이다"고 다짐했다.

부산 금화사 남월 스님은 축사를 통해 "어두운 곳에 있는 보배는 등불이 아니면 볼 수가 없듯이 남을 위해 불법을 설하지 않으면 아무리 슬기로운 사람이라도 알 수가 없다"며 "창종을 축하드리며 무량한 성불잡초의 근원지가 되고 호법성신의 등신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대승조계종은 총본산인 울산 마하사를 중심으로 42개 사찰이 등록했으며 현재 추가 사암등록을 받고 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신뇨엔, 사랑의 김장김치 담기 후원

주관 봉사회에 성금 300만 원 전달



재단법인 신뇨엔(상임이사 정경) 부산정사가 어려운 지역민을 위한 보살행을 이어갔다. 신뇨엔 부산정사는 11월 23일 부산 연제구청에서 '사랑의 김장김치 담그기'의 주관단체인 연제구 여성자원봉사회에 성금 300만 원을 전달하고 정경 국원을 비롯한 대중은 사랑의 김장 1500포기 담기 봉사에도 동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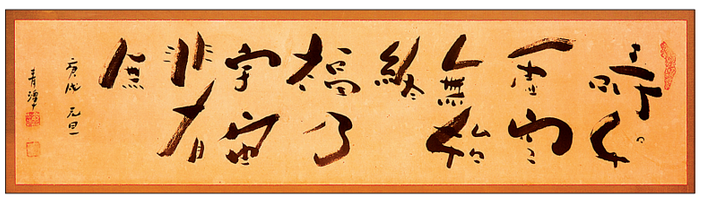
정경 국원은 "코로나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사랑의 김장김치 담기 행사를 통해 이웃과 따뜻함을 같이 나누며, 서로가 위로받는 좋은 일에 함께할 수 있어 기쁘고 감사하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이성문 연제구청장은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힘든 시기에 잊지 않고 한결같이 나눔을 실천해준 신뇨엔에 감사하다"며 "신뇨엔은 지역을 위해 8년 동안 꾸준히 후원해준 단체로 알고 있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신뇨엔은 2014년 부산정사 건립 전인 2012년부터 지역을 위한 보살행을 실천했다. 신뇨엔은 불우이웃돕기, 봉축행사 지원금 및 장학금 후원 등 나눔 활동에 앞장서 왔으며 한 · 일불교문화 교류에도 앞장서고 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청담선사 열반 50주년 특별전 '인욕 佛 청담'

옥천사성보博 내년 2월 3일까지
청담선사 유묵 등 30여 점 전시


청담선사 유묵.

옥천사성보박물관(관장 종성)은 청담선사 열반 50주년을 맞아 11월 24일부터 2022년 2월 3일까지 2층 전시실에서 특별전 '인욕 佛 청담'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청담선사의 법향을 느낄 수 있는 유묵전과 사진전으로, 연화산 옥천사를 포함하여 삼각산 도선사, 수원 봉녕사, 지리산 화엄사가 소장한 청담선사의 유묵 및 기록자료 30여 점을 선보인다. 청담선사의 불(佛)자, 백운정사 편액, 이차돈 순교도, 꿈의 인생, 대도무문 등 처음으로 공개되는 다양한 작품들도 선보인다.

청담선사의 선필은 초월적인 정신성에 있으며, 사회개혁과 정신혁명을 동시에 실천해낸 구도자이자 혁명가였던 선사의 수행의 깊이가 잘 녹아있다. 일상과 예술, 자연과 인간이 하나 되는 물아일체의 살아있는 예술로서 이번 전시를 통해 청담선필의 진면목을 볼 수 있다.

청담선사(1902~1971)는 인욕보살로서 봉암사결사 및 불교정화운동을 통해 청정승단인 대한불교조계종의 초석을 다지며 역경사업과 포교 그리고 도제양성이라는 3대 과제를 통해 조계종단에 커다란 변화와 발전을 가져온 한국 불교의 선지식이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울산 서장사 개금불사 · 동안거 입재



울산 서장사(주지 불성)가 11월 19일 대웅전에서 개금불사 및 동안거 수행 입재식을 봉행했다.

서장사는 석가여래불, 문수보살, 보현보살의 개금불사를 진행하며 동안거 기간 동안 매주 토요일 2시에 경전 독송 및 명상으로 수행을 돕는다. 서장사는 이번 개금불사 및 동안거 수행을 통해 불자들이 공덕과 수행 성장 두 가지를 함께 성취하도록 돕는다.

주지 불성 스님은 "개금은 부처님의 낡은 옷을 새롭게 갈아 입혀드리는 의식이면서 불보살님을 예경하고 따르기 위해 불제자가 서원하며 올리는 공양이다"며 "그러나 가장 큰 불사는 자신의 마음의 번뇌를 소멸해 본래 부처를 뵙는 것이다. 동안거 기간 동안 정진으로 성장하는 계기를 얻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성룡사 ·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 공동 주최

「한국 전통문화와 불교」학술대회

대한불교천태종 성룡사와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는 「한국 전통문화와 불교」를 주제로 불교 유 · 무형문화재가 한국의 전통문화 속에 나타나는 의미와 가치를 규명하고 포교의 활용성을 체계적으로 논의하는 학술대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바랍니다.

일시 2021. 12. 25(토) 9:30 ~ 18:00시

장소 서울 성룡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로7길 30
종무소 전화 : 02)336-2052 팩스 : 02)323-2607

※ 이 학술대회는 '코로나 19'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봉행되며, 학술대회 전체 진행과정은 'YouTube 세운스님 TV'를 통해 실시간 중계될 예정입니다.

주최 성룡사 ·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

후원 대한불교천태종 총무원 · 금강신문 · 법보신문 · 불교신문 · 현대불교신문 · 불교방송

■ 학술대회 진행 순서

시 간	행 사	내 용	사 회
09:30	등록	접수 및 방명록 작성	
10:00	개회식	삼귀의 및 반야심경 봉독 환영사 : 김세운 (성룡사주지) 개회사 : 권기현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회장) 축 사 사홍서원 기념촬영	이필원 (동국대)
10:30	제1발표	주 제 : 불교문화의 사회적 · 문화적 가치 인식과 그 의미 발표자 : 류호철 (안양대) 논평자 : 장용철 (안양대)	
11:15	제2발표	주 제 : 천태사상의 불교문화재에 대한 인식과 활용 발표자 : 이병욱 (고려대) 논평자 : 정상교 (금강대)	
12:00	오 찬		
13:00	제3발표	주 제 : 실담장의 한국 정신문화적 의의와 적용 발표자 : 강대현 (위덕대) 논평자 : 이석환 (동국대)	지미령 (한예종)
13:50	제4발표	주 제 : 연등문화축제의 문화재적 가치와 포교활용 발표자 : 성청환 (동국대) 논평자 : 이재수 (동국대)	
14:40	제5발표	주 제 : 불교 의례 의식과 재난 극복 발표자 : 홍태한 (전북대) 논평자 : 최명철 (위덕대)	
14:40	Break Time		
15:00	제6발표	주 제 : 정신문화로서 신행 · 수행의 의미와 치유 발표자 : 오용석 (원광대) 논평자 : 염중섭 (자현, 중앙승가대)	김 희 (신라대)
16:50	종합토론	좌장 : 권기종 (동국대 명예교수) 발표자 및 토론자 전원	
16:50	폐회		

